

The Study on the Changeability of Fashion Style in View of 'La Differance Image'

Park, Shin-Mi* · Lee, Jae-Jung

Kookmin University* · Kookmin University

Saying that the 20th century was the era of 'Design', the 21st century could be certainly defined as the era of 'Style'. Fashion today cannot be discussed in any way without the changeability of constantly reforming fashion style in consideration.

Fashion trend, which shifts along with a generation of the period, is based on the former images with the ultimate values, and varies as the immediate trend changes. Then, how could the attributes of fashion be explained? This study aims at searching the fundamentals of fashion that tends to continuously chang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Jacques Derrida's theory of 'Deconstruction' in order to proceed this study. In general, the former studies of 'Deconstruction' in fashion were limited to the external form itself. Is what Jacques Derrida pursued only the external deconstruction? Researcher is convinced that the theory certainly includes 'La Differance', and this can be viewed at both the insensible form and external form.

Researcher believes that the deconstructional changeability provides qualitative opportunities that allow to create limitless aesthetic values in fashion. This is expressed in reconstruction of the external form consolidated into insensible form (ideas, sensibility which is immanent in philosophers and artists, and something that enables to generate distinctive properties of formative arts. Researcher has questioned that how the changeability of fashion style could be logically clarified. Researcher eventually realized that this could be elucidated in 'La Differance image'.

The changeability of fashion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La Differance' in the threads of blank spaces of 'La Differance', and dialectical codes. This also could be understood as the nature of fashion that ceaselessly alters. Researcher supposes that Jacques Derrida's theory of 'Supplement' is a clue to discuss such assumption.

Researcher has figured out that the theoretical bases of changeability of fashion style lie on the 'La Differance' adopting Jacques Derrida's theory of 'Supplement', as follows: first, the principle of 'La Differance' in the context of dialectical codes is based on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s theory of 'Derabolute Unterschie', and 'Aufgehobe'. Second, the theory of 'Supplement' is established by Jacques Derrida, and more concrete data regarding this are found in Platon's 'Pharmakos', Aristoteles' 'De Intertatione', and Rousseau's 'Dangerous Supplement'.

This study resulted that the 'Supplement' phenomenon and 'La Differance image' that shown in the changeability of fashion style have created the current styles in the dialectical frame. This again transforms to 'La Differance' images, and attempts to combine with another 'Supplement' in the space of 'La Differance'. This procedure endlessly repeats in variable time and space, and produces a new style.

‘차연적 이미지’로 본 패션스타일의 가변성 연구

박신미* · 이재정

국민대학교* · 국민대학교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스타일은 생활 전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스타일은 개인의 개성을 이미지의 조합을 통하여 외적 형식으로 표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오늘날 이러한 속성은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복식디자인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20세기가 ‘디자인’의 시대라면, 21세기는 ‘스타일’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매 시즌 변화하는 패션 트렌드의 중심에는 디자인과 함께 스타일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패션은 항상적인 가치를 지닌 이전의 이미지를 기저에 두고 즉시적인 트렌드에 따라 변화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하는 패션스타일의 속성은 어떠한 원리에서 규명 될 수 있을까? 본 연구의 목적은 끊임 없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패션스타일의 가변성의 원리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해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논리에 주목하였다. 보편적으로 복식디자인에서 해체주의에 관한 연구는 외형적 형태분석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다. 데리다의 ‘해체’는 과연 외형적 해체만을 추구한 것일까? 연구자가 볼 때, 그의 이론 내면에는 ‘차연’의 논리가 있으며, 이것은 내적 형식과 외적 형식 모두 논의가 가능하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복식에서 해체주의적 가변성은 무한한 미적 가치를 창출하는 질적 계기를 제공하며, 이는 내적 형식(*insensible form*: 아이디어, 철학가와 예술가의 감수성 조정적 특성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의 외적인 형태(*external form*)의 재구성으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패션스타일의 가변성을 ‘차연적 이미지’로 해석하려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차연적 틈의 상태에서 변증법적 기호의 맥락으로서 ‘차연’과 상통하며, 패션 스타일이 변동하는 속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연구자는 데리다의 ‘대리보

충’(supplement)이라는 계기가 이러한 맥락을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라 생각한다. 곧 가변적인 패션 스타일은 변증법적 기호의 맥락으로서 ‘차연’ 그리고 차연적 매개체의 계기로서 ‘대리보충’에 의해 완성된다. 그러므로 패션스타일의 가변성에서 차연의 틈은 이 ‘대리보충’이 열쇠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이론의 축이라 하겠다.

연구자는 이러한 패션스타일의 가변성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데리다의 ‘대리보충’논리로써 차연의 원리에서 찾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증법의 기호학적 맥락으로서 차연의 원리에서 차연의 원리는 헤겔의 ‘절대적 차이’와 ‘지양’을 분석함으로써 근거로 한다. 둘째, 차연적 매개체의 계기로서 대리보충의 원리는 데리다에 의해 파악되었으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플라톤의 ‘파르마코스(pharmakos),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론(De Interpretatione)’, 루소의 ‘위험한 보충’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자는 두 번째 이론적 근거를 개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스타일이 반드시 이상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은 패션스타일의 가변적 놀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존되는 스타일이 반듯이 이상적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는 보편적 논리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곧 패션스타일은 개인차 혹은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 긍정성과 부정성의 양면성을 지닌다.

결론적으로 패션스타일의 가변성에서 보이는 대리보충현상과 ‘차연적 이미지’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변증법적 틀 속에서 현존의 스타일을 창출하며, 이는 곧 차연의 이미지가 되어 차연의 틈에서 또 다른 대리보충과 결합을 시도한다. 이 과정은 시간과 공간의 놀이를 통하여 변증법적 틀 속에서 무한히 반복을 거듭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탄생시킨다.